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깃발 꼬리



어이~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잘 모른다고?

멋있는 발톱을 보고도 모른단
말인가?
이빨까지 보여 줄 필요는 없겠지?

꼬리도 멋있잖아~~!
허, 허, 허, 허~~~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꼬리가 깃발처럼 펄럭거린다. 바람이 뒤에서 불었을까? 좋은 일이 있어서 꼬리 끝을 '다다닥' 흔들다 보니, 꼬리가 깃발이 되었을까? 꼬리를 잘못 그렸는지 유별나게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독특하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이 동물의 발톱이다. 발톱을 길고 무섭게 그렸다. 어지간해서는 저 발톱 앞에 나설 만한 상대가 없을 것만 같다. 그런데 이빨은 드러내지 않았다. 굳이 이빨까지 연출하지 않아도 그 존재감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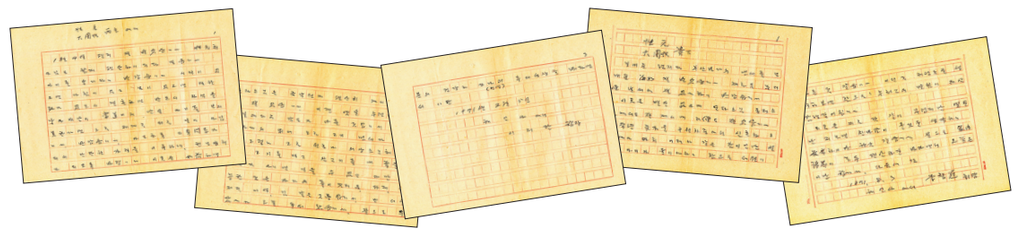
이 그림을 새긴 사람은 이 동물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었을까? 다른 동물이나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다. 화폭에 드러나지 않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앞의 상체는 커 보이고 뒤의 허리는 잘록하게 그려서 더 강하고 날렵해 보인다. 동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 구도를 잡은 것도 긴장감을 더한다. 한 마리의 동물이지만 여러 가지를 읽어 낼 수 있다. 시간이 없던 탓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 그림의 가치를 몰랐고, 이 그림을 해석해 내지 못해서 탁본을 뜨지 않았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이 동물 때문에라도 그곳을 또 가야 할 것 같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⑰ 지관 스님 3

늘 진지한 삶 살았던 선지식



〈서신 1〉
대원성 양주에게
1월 4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 성원 처사님도 함께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아기를 낳았다하니 반갑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生이 있으면 死가 있듯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만이 常道(상도)이지 만일 아기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제대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二身同志(이신동지)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룩하며 현모양처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곳은 如前(여전)하며 일타 스님은 극락전에 편안히 계시며 나도 잘 있습니다. 이젠 옛날 수련대회를 다닐 때와는 각도가 다를 것입니다.
부산 앞바다의 뛰어노는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는 원효나 의상 스님처럼 죽은 고기를 먹고 산 고기를 내놓을 정도가 아니면 먹을 수 없고 다만 가능한 것은 바다의 풀이겠지요. 파래, 진저리, 미역, 김 같은 것 등입니다. 난 서울 갔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건강과 꼬마(근영)의 무애성장을 바라면서 이만.
1971. 2. 5. 해인사에서 이지관

〈서신 2〉
대원성 귀하
보내준 편지와 부산의 바다 냄새를 보내준 海物(해물) 잘 받았습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 잘 있다하니 반갑습니다. 이곳은 별일 없으며 일타 스님 종정스님께서도 잘 계시며 小僧(소승)도 잘 있습니다. 재작년 늦가을 구원차 중에서 신혼차 오던 때가 어제와 같은 감이건만 벌써 아이가 둘이라니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새삼 감명 깊어집니다. 지금은 찌는 듯 무덥지만 며칠만 지나면 찬바람이 올 것을 생각하니 무상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내제절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합니다.
1971. 8. 3. 해인사에서 이지관 회답

〈서신 3〉
대원성에게
23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간 노 처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난 진주 마산 서울 등지를 돌아 2월 3일에 귀사하여 이제 막 음력설을 쇠었습니다. 이곳은 종정스님은 온천장에, 일타 스님은 조사전에 방장스님 등 모두 편안하십니다. 기유년 묵은해의 360일 동안에 신 구 의로 지었던 3업을 모두 씻어 버리고 깨끗한 身口意로 경술 새해를 맞이하여 한층 더 신심을 일으켜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성장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현생을 감축하는 것. 마음에 번민을 제거함은 감소가 아니고 지혜의 증장인 것입니다.
※특히 노 처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언제든지 부산 가면 한 번 찾을까 생각하나 촌사람이 찾을 수 있을지? (음력 1월 20일 경, 가부간 고속버스를 한 번 타기 위해서)

스님께서는 범어사 보살계 수계법회 때마다 교수아사리로 오셨고 때때로 우리 집에서 여는 마을 법회 때도 와 주셨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늘 밤기차로 오시곤 했다. 하루는 궁금하여 왜 밤기차로 오시는지 여쭈었더니 낮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자는 밤 시간을 이용하여 주무시면서 오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공부했다. 삶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사셨던 선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지식의 삶에는 선지식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1980년 범어사 보살계 수계법회 후 지관 스님(중앙)과 연꽃모임회원들 기념촬영.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